

# 취향 하나로 '썸' 타볼래요?

### KBS 2TV 청춘 로맨스 예능 '썸바이벌' 오늘 첫 방송

KBS 2TV는 26일 밤 11시 10분 연예 리얼리티 예능 '썸바이벌 1+1'을 선보인다.

싱글 청춘남녀가 마트에 모여 '썸'도 타고 장도 본다는 콘셉트로, 기존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오로지 취향만으로 짝이 되고, 취향이 같아 살아남는 포맷이라 눈길을 끈다.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청춘남녀의 상큼한 로맨스부터 서바이벌 게임 속 치열한 심리전을 지켜보는 게 포인트이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MC로는 개그맨 이수근, 가수 겸 방송인 김희철, 가수 소유, 피오가 나선다. 이들은 싱글 남녀들의 미묘한 '썸'을 읽어내는 '썸매니저'로 활약할 예정이다.

이수근은 25일 오전 상암동 KBS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일반인들이 출연하면 백화점이나 명품관은 현실적으로 힘든 게 있다. 또 현실에서는 외모만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취향 하나만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소유 역시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거나 식당에 가도 취향이 다른 걸 느낀다. 취향



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김희철도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짭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 상대 의사를 존중하는 매너는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수근은 서바이벌 게임에 걸린 상품이 있어 커플별 참여도도 높다고 귀띔했다.

그는 "대한민국 예능에서 게임이 새로운 건 없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출연자들은 정말 재밌게 했다"라며 "취향대로 맞추다 보니 '남남 커플'도 많아졌다"며 웃었다.

소유는 "상대의 취향을 빨리 파악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썸바이벌'에서의

가장 중요한 팁이더라"고 밝혔다. 정기고와 듀엣곡 '썸'을 히트시켰던 그이지만 커플들의 '썸'을 관찰하는 재미는 여전히 신선하고 즐겁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썸바이벌'에는 최종 우승자에 대한 상금 지급은 있지만 3회부터 탈락 제도는 없다. 참가자 입장에서도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는 셈이다.

연출을 맡은 강승연 PD는 "그동안 KBS에서 보지 못했던 신선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특히 20~30대 젊은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애정을 갖고 보달리"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영화 '신과 함께' 일본서도 흥행 순항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일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5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날 24일 일본 전국 42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이달 23일 기준 5100만엔(5억5000만원)의 흥행 수익을 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1987'(9개 스크린)과 '그것만이 내 세상'(20개 스크린)보다 훨씬 많은 스크린을 확보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도쿄 극장을 중심으로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영화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일본 관객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신과 함께-인과연'도 오는 28일 일본



에서 개봉한다. 한국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예매량 3500장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 MBC TV 힙합 경연 하이лай트 남기고 결방

국내 힙합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화제를 모은 MBC TV 힙합 경연 프로그램 '킬빌'이 '빌보드 입성'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장기간 결방 중이다.

25일 방송가에 따르면 '킬빌'은 마지막 11회를 남겨두고 장기 제작 지연 상태이다. 지난 4월 19일 10회가 방송된 지 두 달도 넘는 상황이다.

제작 지연의 원인은 최후의 2인으로 남은 래퍼 도끼와 비와이가 미국 촬영에 나섰지만, 그들에게 곡을 주기로 한 DJ 칼리드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와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작진이 미국에서 촬영이 있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 찾아갔는데, 제작진은 오지도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제작사 측은 DJ 칼리드와의 계약 내용은 명백하다며 제작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2개월 이상 제작이 표류하면서 방송사 내부에서도 "사실상 미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MBC 공식 입장은 "방송을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최선을 다하겠다"이다.

'킬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빌보드 점령'을 목표로 했다. 도끼, 비와이, 양동근, 제시, 치타, 산이 등 대표 래퍼들이 경찰에 나선 이유도 미국 유명 뮤지션이자 곡만 냈다 하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DJ 칼리드와의 신곡 협업 때문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목표이자 본질이었던 DJ 칼리드와의 접점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잡음이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약을 통해서 진행했을 것인데 애초에 시작할 때 제대로 계약이 안 됐을 수 있다. 계약으로 움직이는 건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기다 프로그램이 논란도 있었고, 관심도 낮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며 "엠넷 '쇼미더머니'도 해외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여러 가지로 '킬빌'은 무리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는 출연자 몫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빌보드 차트에 연이어 곡들을 올리자 국내 경연 프로그램들이 너도나도

빌보드, 세계 무대 진출을 외치는 것이 사실이다.

'킬빌' 외에도 엠넷 '프로듀스 엑스(X) 101' 역시 초반 빌보드 진출을 모토로 내세우며 '국민 프로듀서' (투표권을 가진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자 홍보했다.

그러나 여러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결국 빌보드 진입 여부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의 홍보능력이 아니라 경연을 통해 탄생한 아티스트의 능력과 제작진의 꼼꼼한 협업 준비에 달렸다는 게 증명됐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도 통화에서 "근래 방탄소년단, NCT,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어서 빌보드 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얘기가 된 느낌이 있다"라며 "그러나 빌보드를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디테일한 접근방식과 체계화가 필요한데, 일부가 성공했다고 '우리는 무조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정보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김현준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김현준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단, 하나의 사랑(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국토부장관 김현미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총조립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2019 KBS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큐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1~2부
9	00 KBS 뉴스9			
10	00 6.25 특집 2019 국제공동제작 끝까지 않은 전쟁 2부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살맛나는 세상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슬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1~2부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20 스포츠 하이лай트 45 TV는 사랑을 싣고(재)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틀!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07:00 로보가 폴리	13:00 지식채널e	19:30 생방송 판다다
07:15 꼬마버스 타요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페파 피그	14:30 꼬마버스 타요(재)	〈알프스 산골기행 3부 미니이만 아는 숨은 명소〉
08:00 덩동댕 유치원1~2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8:30 몬카트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여름이면 울주 3부〉
08:45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	15:45 출동! 슈퍼웍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마사와 곰	16:00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재)	22:45 극한직업
09:30 원더볼즈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24:50 글로벌 특선다큐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음 5월 24일 甲午)

<p><b>子</b> 36년생 충분히 무리익었다. 48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겠다. 60년생 번거롭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둬야만 훗날이 안전 하리라. 72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나, 84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47, 58</p>	<p><b>午</b> 42년생 유지가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54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이하게 될 것이나, 66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78년생 모순이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90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53, 80</p>
<p><b>丑</b> 37년생 이해가 갈 것이다. 49년생 되돌아본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61년생 바리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85년생 탐탁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옹이하다. 행운의 숫자 : 62, 36</p>	<p><b>未</b> 43년생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리라. 55년생 심오하고 미묘한 입지에 놓인다. 67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이다. 79년생 내버려 둔다면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화 될 수도 있다. 91년생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16</p>
<p><b>寅</b> 38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참된 말은 귀에 거슬리느니라. 50년생 시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다. 62년생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74년생 밀어 붙이면 성사된다. 86년생 현안을 타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64</p>	<p><b>申</b> 44년생 방법이 확실해가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68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겠다. 80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2년생 사소함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행운의 숫자 : 11, 62</p>
<p><b>卯</b> 39년생 절대다소 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51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 63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75년생 노력한다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87년생 구태의연함을 정리하고 참신함을 도모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04</p>	<p><b>酉</b> 45년생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한다. 57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속에 행운이 따른다. 69년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81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93년생 변화를 보일 수도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3, 54</p>
<p><b>辰</b> 40년생 근원적인 것이 관참은 편이다. 52년생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겠다. 64년생 복록의 원천이 생길 것이나 귀히 활용하라. 76년생 탈바꿈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88년생 괜히 굶어서 부스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잠자코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4, 09</p>	<p><b>戌</b> 34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46년생 황량한 대지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58년생 물거품이 된지 오래 되었다. 70년생 자애로 말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82년생 의욕적으로 표현했을 때 크게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54, 38</p>
<p><b>巳</b> 41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53년생 평상시에 규칙적이야만 확실한 효과를 보느니라. 65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77년생 명분에 사로잡힌다면 손실을 낸다. 89년생 힘이 드는 하루가 펼쳐 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11</p>	<p><b>亥</b> 35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47년생 불완전했던 원인 요소가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59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질을 부른다. 71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자. 83년생 대단하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36, 10</p>